

성삼 후 17주일(연중 26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지헬레나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278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8쪽 집 전 자
†죄의고백 9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자비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1독서 예제 18:1-4, 25-32 말 은 이
성 시 시편 25편 다 함 께



- 1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보오며
○ 나의 하느님, 당신만을 |믿습니-다.
- 2 그러므로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게 |하시고
○ 원수들이 으스대지 못하게|하소서.
- 3 주여, 당신의 |자비와
○ 한결같은 옛 사랑을 |기억|하시고
- 4 젊어서 저지른 나의 잘못과 죄를 잊어 |주소서.
○ 주여, 어지신 분이여,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 5 주여, 당신은 바르고 어지시기에
○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 6 겸손한 자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 ◎ 영광이 |성부 와 ○ 성 |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필립 2:1-13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태 21:23-32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19쪽 다 함 께
†봉헌성가 424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0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2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5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6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439장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29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29쪽 집 전 자
†파송성가 453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0월 1일)	다음 주일(10월 8일)
1독서	윤희진	백남진
2독서	유정훈	박선희
대 도	김운권	신동홍
10월 8일 전례독서	이사 5:1-7 시편 80:7-15 필립 3:4하-14 마태 21:33-46	
성 가	255 514 439 409	
다음주일 복 사	이동우 이서현	보혈조력 채베드로
다음주간 교회청소	<6조> 최용옥 윤희진 허예영 동소신	

(1997-2023 / 교회설립 26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3년 10월 1일 성삼 후 17주일(연중 26주일) · 가해 · 녹색

제27-40호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우선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서를 읽으면서도 해석과 실천이 제 각각인 것도 현실입니다.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면 된다는 대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공동체 자체가 분열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충분히 고민하여 분별하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견한 태도이지만 무척 불안한 선택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도 과연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은 이런 점을 비추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그 권위의 근거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권위, 전통으로 전해진 권위, 많은 지지자를 가진 권위, 강한 카리스마로 행사되는 세상의 권위를 선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놀라운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제도적 권력구조에 기대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온전히 일치되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여 행사하려는 야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에 일치시키려는 겸손

을 택했습니다. 신앙공동체에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권위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감복시키는 마음과 진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의 마음에 의지하여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서 말씀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과 깊은 사귀기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인간이 내세우는 명분이나 교리체계보다 훨씬 깊고 높고 큼니다. 하느님의 뜻은 자유롭고 살아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고, 예배의 영이시고, 친교의 영이시고, 선교의 영이십니다. 바울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하느님의 나라를 선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성찰하고 자문합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실이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가?”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야나)

대한성공회 설립기념일 (9월 29일)

올해는 1890년 9월 29일에 대한성공회 초대주교 고요한 주교님(Charles John Corfe)이 인천에 복음화의 발걸음을 내딛은 지 1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인천항에 도착하여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지방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개화기에 신명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선교를, 인천, 서울, 강화, 여주, 진천 등지에 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선교초기부터 한국문화의 토양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고자 토착화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토착화에 바탕을 두고 한국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성당들이 지금도 강화읍, 온수리, 진천, 청주 등에 남아 있습니다.

1914년에는 성직자 양성을 위한 성미가엘 신학원(현 성공회대학교), 1925년에는 수도자를 위한 성가(聖架)수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초기 선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신지체장애 교육기관인 성베드로학교, 도시빈민지역 선교를 위한 나눔의 집 설립과 함께 각종 복지관 등 사회선교가 비약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965년 이천환 주교님이 첫 한인 주교로 서품을 받았으며, 대한성공회는 서울교구와 대전교구로 발전적 분할을 하였고, 다시 1974년에 대전교구는 대전교구와 부산교구로 분할되어 대한성공회는 현재의 3교구 체제가 되었습니다. 1992년 9월 29일에 [대한성공회 헌장과 법규] 공표와 함께 세계성공회 내의 35번째 독립관구가 되었습니다.

1. 관구의 의미

전세계 165개국 약 1억 명의 성공회 신자들은 모두 각자의 교구(Diocese)와 관구(Province)에 속해 있습니다. 성공회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교구와 관구입니다. 관구는 일정한 민족적 혹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 인근의 여러 교구들이 모여, 신앙의 일치와 증진하고 서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사명과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의 가장 큰 단위입니다.

세계성공회는 38개의 관구로 구성되며, 대한성공회는 지난 1992년 9월 29일에 [대한성공회 헌장과 법규] 공표와 함께 35번째 독립관구가 되었고, 관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원(관구사무소)을 설치하였습니다.

2. 관구의 역할

- * 교무원(관구사무소)
 - 세계성공회 공동체와 선교협력 및 연대
 - 전세계 38개 각 관구들과 교류와 협력
 - 해외 한인교회와 선교협력
 - 국내 교회연합기관과 일치협력
 - 국내와 사회선교기관과 연대
 - 언론사 및 대외 교단홍보
 - 전국의회 준비와 개최
 - 3개 교구 공동 선교정책 수립과 시행
 - 성공회 기도서 및 헌장법규 개정
 - 전국의회 산하 상설위원회 운영
 - 전국 어머니연합회, 전국 GFS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전국연합단체 지원
 - 대한성공회 산하 각 사회선교 활동 지원

교회소식

알림

◆ 산본교회 안양교회 안산교회 연합예배 안내

10월 15일(주) 오전 11시 / 늘푸른 복지관 남부교무구 안양권 세 교회의 선교 협력을 위해 마련되는 연합예배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세 교회의 연합과 교류를 위한 예배이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교회위원회

오늘(10월 1일) 오후 1시 30분 / 어린이 예배실

◆ 세례성사 · 견진성사 교육 신청 안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교육이 10월부터 진행됩니다.

세례교육 - 10월 10일(화)부터 (10주간)

견진교육 - 10월 6일(금)부터 (7주간)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제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성사 - 12월 24일 / 견진성사 - 11월 19일

◆ 수요 성서공부

10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 교회 차량 구입 - 카니발

교우 여러분께서 모두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주셔서 좋은 차량을 교회가 구입하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회 탐방 - 서울 편

10월 14일(토) / 대성당 - 대학로 - 영등포성당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무구 위원회

10월 8일(주) 오후 3시 / 수원교회

◆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 56차 정기총회

10월 10일(화) 오전 10시 /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허훈제(1일) 이선자(6일)

◆ 채희발 베드로 교우 모친이신 도귀순 나오미님이 지난 9월 25일(월)에 별세하셨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외출 말씀 50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지난 주일 통계

■ **십일조 · 월정헌금** 1,720,000원
권순호/황선숙 김은하 김준우/조장은
이은경 정국진/이숙영 정연창/박순호
조준행 최용준/백기은

■ **주일헌금** 251,000원
고미순 권순호 김승현 류한신 박선희 박종례
백옥경 유정훈 이도연 이범희 이원주 이은경
조준행 최순덕 최용옥 한명숙 허예영 황선숙

■ **주일학교** 2,000원
유아윤 유아현

■ **감사헌금** 350,000원
방유미 이은경 지병애 차준섭/김승숙 채희발

■ **특별헌금** 70,000원
최미혜(늘푸른복지관) 최용준, 무명(관구발전)

■ **교회 차량헌금** 50,000원
이은경

<온라인 미사 봉헌금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기도해 주세요 ※

◆ 가족과 이웃을 향한 전도

70명이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유근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김병재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 새교우(예비신자) 전아영